

는 실정이다.

따라서 보건의료 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요구도가 증가되어 가는 현실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확대 일로에 있는 이 시점에서 보건진료원에 의한 일차건강관리 사업의 확대로 예방적보건의료 사업이 강화되므로써, 특정 보건의료 기관(2차·3차)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보험의 재정적인 측면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증가되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요구도의 해결을 위해 본 제도의 확대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리라 본다.

보건진료소 운영분석 연구

한국인구보건 연구원, pp. 1~100, 1987. 12.

김진순 · 오영애 · 윤치근 · 유호신

1988년부터 지역의료보험 실시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활동방향의 정립을 위한 보건진료소의 기능분석 및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을 분석할 목적으로 1987년 5월 14일~5월 31일까지 현지 방문을 통한 기록부 검토방법에 의하여 수집된 자료분석 하였다.

농촌벽오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지역주민의 1차진료요구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정부가 당초 계획한 자체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. 더우기 공공부문의 성격을 가진 보건진료소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보건진료소 수가에 의한 수입으로 운영되었다는 관점에서 볼 때 다른 공공부문에 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. 그러나 보건진료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다 포괄적인 활동을 수행하려면 모자보건, 결핵관리, 가족계획 등 정부의 주요 보건사업에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. 더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요구 파악과 이에 기초한 건강증진 활동이 다각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 보건소의 행정적, 기술적 및 재정적 자원이 요구되며 중앙으로 부터의 물품보급 및 운영비의 부분적 지원이 절실히 요청된다.

충북지역 보건진료원의 업무 분석적 연구

청주전문대학 논문집 제13호 별책, p.223, 1987.

김 회 자

본 연구는 보건진료원의 업무를 분석하기 위하여 충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건진료원 13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백분율, 평균값, 표준편차로 자료처리를 하였다.

조사기간은 1986년 8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했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

1. 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과 업무에 관련된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

보건진료원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분포는 30~34세가 30.1%로 가장 많았고 결혼상태는 기혼자가 61.8%였다. 종교는 기독교가 42.6%로 많았고 학력은 3년제 간호전문대학 과정졸업자가 78.9%로 많았다. 현 가족과 동거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76.5%였고, 보건진료원의 경력은 1년 미만이 41.2%로 가장 많았다.

보건진료원의 업무에 관련된 배경을 살펴보면, 근무지역조건은 '갑지가 65.3%였고, 현 거주지는 보건진료소내 숙소가 대다수였다. 보건진료소는 신축된 건물이 대다수였고, 보건진료소 시설은 "그저 그렇다"고 대답한 수가 가장 많았다.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수당은 월 5~7만원인 경우가 85.6%였다.

2. 보건진료원의 보건의료제공 실태는 다음과 같다. 보건진료원이 현재 담당하는 주민수는 501~1,000명이 35.3%이고, 1,500명 이상의 주민을 담당하는 경우도 32.0%였다.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주민은 연 평균 1,956명이고, 보건진료소 평균 이용건수는 1,812건이다.

보건진료원의 직업만족도는 만족한다가 40.6%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.

3. 보건진료원과 보건의료 관련기관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.

지역주민의 보건의료자원 이용 정도는 보건소진료소가 1위로 가장 많았고, 약국, 약방, 의원, 보건지소의 순위로 나타났다. 보건의료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는데, 보건소(19.7%), 보건지소(20.2%), 민간보건 의료기관(22.4%)이며, 그 이유를 알아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겠다. 원하는 감독체계는 보건소장(47.3%), 보건간호 전문가(37.2%)로 나타났으나 이는 현재있는 감독체계내에서 생각한 것이며 간호전문가에 의한 새로운 감독체제를 원하고 있었다. 많이 이용하는 의뢰기관은 병원(52%), 의원(24.4%), 보건소(10.2%)순이었다.

4. 보건진료원의 업무 영역별 수행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. 보건진료원의 영역을 구분하여 수행평균 평점을 보면 통상질환 관리가 3.70점, 사업운영 관리 및 지도가 3.44점, 사업계획 수립이 3.19점, 지역사회조직 및 개발이 3.17점,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이 3.14점, 지역사회 보건관리가 3.09점, 보건정보체계 개발이 3.02점으로 나타났다. 위의 결과에서 지역사회 보건관리가 3.09점으로 통상질환 관리 3.70점 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차보건의료 사업 정착의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생각하며, 이부분을 더 많이 수행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.

5. 보건진료원의 업무 영역별 수행 소요시간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.

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 3.48시간, 사업계획 수립 3.55시간, 지역사회보건 관리 6.74시간,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5.55시간, 통상질환 관리 15.94시간, 사업운영 관리 및 지도 4.39시간, 보건정보체계 3.62시간으로 나타났다.

보건진료원이 통상질환 관리와 더불어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, 교육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.

전남지역 보건진료원의 업무에 관한 분석적 연구

광주보건전문대학 논문집 제12호, pp. 3~108, 1987.

손인아 · 강혜영 · 정영

본 연구는 보건진료원의 업무활동 분석을 위해 전남지역의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원에게 설문용지를 배부하여 활동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1. 일반적 특성

대상자의 평균연령은 31세였고 교육은 대부분(65.7%)이 간호전문대학 수준이었다. 이들중 65.7%가 기혼자였고 종교는 77.6%가 갖고 있었으며 진료원 경력은 5년이상이 11.2%, 1년 미만이 17.5%로 나타났다.

2. 업무와 관련된 배경

근무지역 조건으로서 55.9%가 갑지에서 근무했고 응답자의 97.1%가 진료소내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진료소는 92%가 신축건물을 사용한다고 했다. 진료소 시설상태에 관한 응답은 36%가 좋다고 하였고 호봉수준은 현재 1~2호봉의 경우가 36.0%로 가장 많았다. 운영협의회 수당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28.9%며 벽오지 수당이 없다고 대답한 경우도 16.3%였다.

3. 직업만족도

만족한다가 44.6%, 만족하지 않는다는 6.9%로 나타났다.

4. 담당주민수 및 보건진료소 이용률

전남지역 보건진료원 1인당 평균 담당 주민수는 1,789명 수준인데 적정담당 주민수